

눅우치고 갔으니

(마21:28-32)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입니까?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가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제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신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눅우치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듣기 싫고 화가 났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반응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큰 아들은 단순히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꾼 생각과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자신이 거부하였던 바로 그 일을 하고자 포도원으로 돌아 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온전케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요6:29)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눅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눅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 가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싫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눅우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와 지시기를 축원합니다.